

대출 감소·소비쿠폰에 작년 3분기 가계여윳돈 7조 늘었다

가계·비영리단체 순자금 운용 58조

금융기관 예치금 7조6천억원 늘어

투자펀드는 15조1천억 최대 증가폭

지난해 3분기(7~9월) 각종 부동산 규제로 전 분기보다 대출은 줄고 소비쿠폰 등에 소득은 늘어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7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8일 공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2025년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8조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2분기(51조3천억원)보다 6조7천억원 늘었지만, 통계 편제 이후 최대였던 1분기(92조9천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순운용) 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음(-·순조달)의 상태인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지출을 상회하는 소득 증가 등으로 가계·비영리법인 순자금 운용 규모가 전 분기보다 늘었다"며 "소득 증가에는 이전소득인 소비쿠폰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3분기 자금 운용 규모(78조8천억원)도 전 분기(76조9천억원)보다 약 2조원 불었다.

특히 금융기관 예치금이 34조5천억원에서 42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17조7천억원)은 전 분기(17조9천억원)와 비슷했다.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을 세부적으론 나눠보면, 거주자 발행주식은 11조9천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비거주자 발행주식은 2조8천억원에서 5조8천억원으로 3조원 늘었고, 투자펀드 지분도 8조8천억원에서 23조9천억원으로 급증하며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투자펀드 지분에는 국내에서 발

행한 해외주식 관련 ETF(상장지수펀드) 등도 포함된다.

가계가 3분기 조달한 자금은 모두 20조7천억 원으로, 전 분기(25조6천억원)보다 줄었다. 금융기관 차입이 한 분기 사이 29조원에서 19조3천억 원으로 감소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4조4천억원에서 11조6천억원으로 감소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말 88.3%로 집계됐다. 2분기(89.7%)보다 0.4%포인트(p) 떨어져 2019년 3분기 말(88.3%) 이후 가장 낮았다.

김 팀장은 "6·27 대책,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규제 강화로 주택

담보대출,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3분기 중 가계부채 증가 폭이 명목 국내총생산(GDP)보다 작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계·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이 3분기 24.4배로 전분기(24.1배)보다 올라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비금융 법인기업은 3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가 19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3조5천억원)와 비교해 16조원 급증했다. 설비투자 등 투자 확대와 함께 자금조달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 수입이 지출을 웃돌면서 일반정부의 자금 운용도 2분기 2조7천억원 순조달 상태에서 3분기 5조9천억원 순운용으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고등어 '특별 할인전'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등어 가격 급등에 따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8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고등어 및 생선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광주·전남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

12-23일 접수…입상자 전국대회 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와 전남지사는 8일 "지역 내 우수 기능인재를 발굴하고 숙련기술인의 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2026 광주·전남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시 기능경기대회는 오는 4월6일부터 10일까지 광주 관내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전남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순천·여수·나주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 대회를 분산 개최할 예정이다.

대회 종목은 기계·전기·자동차 등 전통 산업 분야는 물론 IT와 신산업 분야까지 폭넓게 구성돼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기술인재 발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참가 자격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광주 또는 전남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광주·전남 소재 학교 및 기업체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며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해당 직종의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혜택과 함께 오는 8월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제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전남 대표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마이스터넷 (<http://meister.hrd.kore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 기능경기위원회 사무국(광주 062-970-1737, 전남 061-720-85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태호 기자

농협무안군지부, 애플망고 농가 현황 점검

아열대 농산물 브랜드 추진 등 논의

농협중앙회 농협무안군지부는 8일 "최근 병 오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무안군 해제면을 방문해 애플망고 재배 농가를 직접 찾아 농가 현황을 점검하고 농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작물 전환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무안 해제면은 애플망고 같은 고부가 가치 작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며 무안군과 전남농협은 지역농가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재배 기술 지원과 마케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는 전남도의 대표적인 아열대 농산물 브랜드인 '오매향'과의 연계 사업 추진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최평강 농협무안군지부장은 "무안군과 농협



농협중앙회 농협무안군지부가 최근 병오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무안군 해제면을 방문해 애플망고 재배 농가를 직접 찾아 농가 현황을 점검했다. /농협무안군지부 제공

이 함께 협력해 '오매향' 브랜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지

속적인 현장 방문과 소통을 통해 농민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오픈AI '챗GPT 건강' 출시…검사 결과 분석에 식단 관리도

오픈AI는 사용자 건강에 대한 이해와 건강 관리를 돋기 위해 '챗GPT 건강'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능은 이용자가 자신의 건강 정보와 맥락을 바탕으로 최근 검사 결과를 이해하고 진료 전에 필요한 질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됐다.

식단 관리는 물론 운동에 대해 조언하는 등 일상적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오픈AI의 건강 기능 출시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 관련 질문이 챗GPT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오픈AI가 의약학된 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주 2억3천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챗GPT에 건강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그동안 건강 정보는 다양한 앱, 웨어러블 기기, 진료 기록 PDF 파일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챗GPT 건강 출시로 이러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오픈AI는 전했다.

다만, 챗GPT 건강은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상적 질문에 대한 이해와 장기적인 건강 패턴 파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실제 의료 상담이나 진료를 앞두고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발에는 지난 2년간 60개국에서 활동하는 의사 2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